해남 겨울배추·신안 양파 가격 80% 보장

전남농협, 계약재배 1만t '생산안정제' 추진

재배물량 사전 조절·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해마가 가격이 들쑥날쑥해 농민을 울상 짓게 하는 겨울배추와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3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15년 전남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채소류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겨울배추와 양파 품목에 대해 생산안정제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안정제는 계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평년 가격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강원도 일대 고랭지배추에 이어 전남 겨울배추와 양파에 대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채소수급안정사업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왔으나,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가 어려워 계약재배한 물량의 저가격세가 지속해 왔다.

이에 생산안정제를 통해 일정 가격이 보장되면 재배물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생산안정제는 품목별 주산지에서 할 수 있으며, 겨울배추는 해남군 관내에서 5000t, 양파는 신안군 관내에서 5000t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격보전을 위해 보조 80%(정부, 지자체, 농협)와 농민이 20% 자부담을 부담해 6억6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수급대책인 사전적 면적조절과 도매시장 가격이 5개년 평년가격보다 낮을 경우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 쓴다.

겨울배추의 경우 보전기준 가격은 평균 4920원(10㎏)이다.

또한 생산안정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산지 지자체 및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주산지협의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행정, 외부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생산안정제 추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강남경 본부장은 "생산안정제에 많은 농민이 참여해 계약재배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해 해남 겨울배추는 평년 가격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해주는 생산안정제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겨울 해남 한 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어촌公, 2017년까지 500명 뽑는다

올 101명 중 광주·전남 출신 10% 우선 채용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2017년까지 신입사원 5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달 2015년 신입사원 101명을 공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려 내년과 2017년에는 각각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 분야는 행정, 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등이다. 채용인원 101명 중 48명을 농어업인 자녀로 선발하며 광주·전남 출신을 10%까지 우선 채용한다.

공채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www.ekr.or.kr)로 한다. 10월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초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를 거쳐 면접전형을 한다.

이강환 농어촌공사 인사복지처장은 "농어촌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누빌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며 "채용인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공사 '어촌수산분야 소통의 장'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본부 대회의실에서 최근 본사 어촌수산처와 본부 및 지사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수산분야 소통의 장'을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어촌 6차산업 활성화, 간척지 및 저수지의 수산업적 활용방안과 같은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본사부처와 지방부서간 의견을 나눴다.

조성광 본부장은 "토론회를 통해 어촌수산사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공사가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탁구공만한 사과 나온다

농진청 '작은과일' 본격 보급

"껍질째 먹을 수 있어 편리"

앞으로는 크기가 큰 과일(대과) 대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중간 크기 과일이 시중에 많이 나올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과일 소비 변화에 맞춰 크기가 작아도 품질이 좋은 사과와 배 품종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사과 '후지' 품종의 무게·직경은 310g·직경 9㎝이며, 배 '신고'의 경우 750g·직경 12㎝ 이상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중간 크기 사과는 '아리수'(285g), '피크닉'(223g), '황옥'(229g), '썸머드림'(220g), '루비 에스'(90g), '데코벨'(10g) 등으로 모두 후지보다 작다.

장식용인 '데코벨'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루비 에스'는 크기가 탁구공보다 조금 큰 정도다.

이들 품종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에 수확하며 당도는 후지와 비슷하다. 깎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나들이용으로 좋고 기내식·군납·단체급식용으로도 알맞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지금 100여개 농가에서 재배하는 '아리수' 사과는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피크닉'과 '황옥' 품종도 올해 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돼 15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중간 크기 배 품종인 '황금배'(450g), '한아름'(480g), '스위트스킨'(450g), '조이스킨'(330g), '스위트코스트'(450g), '소원'(330g), '솔미'(350g)도 개발했다. 당도는 12~14브릭스로 신고(11~12브릭스)보다 높다. '황금배'는 이미 재배면적이 320ha에 달해 우리나라 4대 배 주품종에 속하며 미국·대만·캐나다 등으로 수출도 한다. '한아름'도 전국에서 100ha 내외로 재배하고 있으며, '스위트스킨'과 '조이스킨'은 내년 봄부터 농가에 묘목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은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늘어난 중간 크기 과일 수요를 맞출 뿐 아니라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먹기도 편리하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고관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국산 사과와 배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 생산비를 낮추면서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작은 과일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 시교육청에 화분 1913개 전달

초등학생 '농업사랑' 체험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꽃사랑·농업사랑' 체험활동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될 화분 1913개를 전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도시권에서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직접 꽃을 가꾸게 함으로써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꽃사랑 농업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창의적 체험교육'(꽃사랑 농업사랑)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꽃이 심어진 화분을 공급하고 화분을 받은 학생들이 화분에 심어진 꽃을 키우면서 기록·관찰한 체험활동을 평가·시상하는 사업이다. 농협중앙회와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농식품부와 교육청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13회째다.

이근 본부장은 "향후에도 자라나는 우리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꽃사랑·농업사랑 체험교육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농협, 담양서 '축산물 情나눔 행사'

전남농협(본부장 강남경)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전남도지부 및 담양축협(조합장 김명식)과 함께 지난 21일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마을에서 경종농업인 100여명을 초청해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인 '축산물 情나눔 행사'를 가졌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범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마을회관에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인의 작지만 소중한 情이 담긴 축산물을 이웃 경종농업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010-2611-7687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하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미 정
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서원식당
동구 금남로2가 구)동구청옆골목
백반, 생삼겹, 오리로스, 병치조림, 갈치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김영호 ☎062)227-9769

북구모아공인중개사
북구 중흥동328-15 중흥모아@ 후문
아파트, 원룸, 상가, 임야
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고광욱 ☎010-3624-0058

이 가 회 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무 크 광 주 세 정 점
서구 상무대로 세정아울렛2층 258호
신사화, 숙녀화, 캐주얼, 지갑, 벨트, 가방
디자인 및 품질향상, A/S 보장
☎062)370-9258

노루표페인트&yb디자인
북구 필문대로 서방사거리 이마트건너편
아파트,주택,상가리모델링,신축조립식주택시공
씽크대및 붙박이장공장 직영제 제작및 시공
☎010-3603-0806

광 주 학 당
북구 서방시장내 관리사무소옆 2층
한글 문맹반 · 초등반/영어 기초반 · 중급반
한자 · 한문반/컴퓨터반(오전/오후/야간반)
☎062)512-578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회암관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옆 장열사 정문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손님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 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의상실옆)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뚱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붕장어, 샤브샤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블 르 메 플 라 워 샵
동구 궁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동 · 서양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